

문 여는 정기국회... 입법·예산안 등 놓고 與野 공방 예고

與,尹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기회
野, 입법·예산안 심의에 매진
내달 25일尹 대통령 시정연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입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4일과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당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또한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0월 25일엔 윤석열 대

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이 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당 내홍 수습 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보고도 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69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생 법안인 '민생시그널 169' 중 22개의 우선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국민

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하는 사안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14억원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의 경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발 물러서는 윤핵관... 與 내부갈등 수습

권성동, 새 비대위 출범 후 거취 표명
장제원 "임명직 공직 말지 않을 것"

국민의힘 내홍 원인으로 꼽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2선 후퇴 수순을 밟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자 윤핵관 만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 거취 표명'을 하기로 했다. 윤핵관 한 축인 장제원의 원도 2선으로 후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거취 논란을 두고 "제 입장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당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새로운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유지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듯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당내 갈등 문제에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윤핵관 한 축으로서 계파 결집을 하거나 정부 고위직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의 저의 부덕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 됨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 갈등 수습 차원에서 주장된 윤핵관 2선 후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입장이다. 윤핵관이 2선 후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갈등도 수습되는 분위기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추진하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임전

국위원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도 내려놓는다"고 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의원은 "어떻게 하면 제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에,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개최 반대로 새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려 했지만, 당내 갈등이 커지자서 의원도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또 다른 당 내홍 원인으로 꼽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이 전 대표가 당 내홍에 책임지고 2선 후퇴하지 않는 한,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서 의원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직후 SNS에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친박근혜계)도 꺼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친이명박계)도 다 꺼냈다.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냐"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만난 이재명... 종부세 두고 신경전

앞서 김진표 의장과 민생 이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의 중요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경제, 특히 일자리와 복지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왔다. 경륜을 토대로 중앙정치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에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다. 여야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다. 양자가 잘 조화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덕담을 주고 받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권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에는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여야 이견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한 두 사람은 화기에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대선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종부세로 화제가 옮겨가자 신경전을 벌였다.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외교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

>> 1면 '무역 350조 풀어서 계속

"뚝뚝 뚫힌다면 해외건설 붐 실현"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이집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톱코리아로 뚝뚝 뚫힌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을 조

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 배후에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의당, 첫 '비례대표 총사퇴 투표' 개시

권리당원 20% 이상 참여돼야 성립
정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에 의한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31일 개시됐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권자(당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은 이번 달 7일 당원 1002명의 연서명을 받아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중앙당에 제출했고,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원총투표를 성사시켰다. /박정익 기자